가승진패(假勝眞敗)

1597년 8월 11일

“드디어 조선이군!”

나는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이다.

보잘 것 없이 작을 마을을 점령하지 못해서 우리가 임진년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니...억울하고 분통하다.

이정도면 하루면 되겠어!

내일이면 남원성을 차지하고 호남지방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장거리 조총으로 무장한 좌군은 우키타 히데이에 사령관, 시마즈 요시히로 장군이 맡고

많은 군인이 배치된 우군은 모리 히데모토 사령관, 가토 기요마사 장군.

난 선봉에 서서 작전을 지휘한다.

우리의 작전은 이렇다.

좌군과 우군이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선봉에 선 내가 아래로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 수군이 칠천량에서 막아주면 조선인들은 사방에 갇혀 남원성을 내놓게 된다.

구례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물론 쉽게 이겼다.

조선인들은 한심하다.

이깟 것을 지키겠다고 삽을 들고 조총에 맞서는지...

조선 임금을 떠 받드나 일본을 떠 받드나 땅에서 농사짓는 건 똑같은 것 아닌가?

쯧쯧쯧 멍청하게 죽는 조선인들이 딱하기 따름이다.

1579년 8월 12일

남원성에 도착했다.

명의 장수인 양원이라는 자가 있는데 교룡산성이 아닌 남원성에서 수성전을 전개하니 나는 고마울 따름이다.

교룡산성은 거의 요새 수준이라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좀 시간이 걸렸을거다.

하지만 식량과 백성까지 싹다 남원성으로 옮겨 놨으니 나야 고맙지.

나는 서문을 맡고 우키타 장군은 남문, 시마즈 장군은 북문을 맡았다.

동문은 하치스카 장군의 군이 압박하고 있다.

훗훗 너무 식은 죽 먹기로 승리하는 건 아닐까?

“둥! 둥! 꽈광광광! 둥! 둥! 빠아앙~”
“무슨 소리야!”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니 나팔과 징소리까지도 들렸다.
작은 군대가 우리 진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건 무슨 전략이지?

“뭐야 저 놈은 ! 정신이 나갔나! 이름이 뭐야? “
“조선의 병마사 이...복남이라고 합니다.”
“아하하하! 별놈을 다 보겠네. 죽으려고 애를 쓰는 군! 조준! 발사!”
우린 예상대로 쉽게 승리했다.

오늘 하루 이복남이란 자가 이끄는 무리를 시작으로 5번의 전투를 했다.
반나절이면 성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작은 돌덩이를 치우고 오느냐 기력을 많이 썼다.
무엇보다 전투라기엔 조선인들의 무리라고 하는 게 맞는것같아 자존심이 상한다.

전쟁터에 북, 삽, 꽹이를 들고 오다니...싸움 상대가 안됐다.
조선인들은 왜 죽으려고 애쓰는 걸까?
그들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걸까? 적의 마음을 이해하기엔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

1597년 8월 13일
수레 가득 짐을 싣고 도망을 가는 조선인들을 보았다.
여자와 아이도 있었다.
우리 군은 모역적인 말을 해대며 놀렸다.
우리는 모두 깔깔 웃었지만 잠시 후 표정이 싸해졌다.
“ 탕! 탕! 탕!”
짐에서 총을 떠내더니 우리 군인 3명을 총으로 쏴 죽였다.
내 얼굴은 즐거움에서 놀람, 살기를 내뿜는 얼굴로 바뀌며 외쳤다.
“공격 개시!!!”
우리는 조총으로 공격했다.
조선인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어린 아니가 폭탄을 던졌다.
서로 치열한 싸움이 오고갔지만 나름대로 꽤 선전했다.
나중에 첩자 한테들었는데 놈들이 쓰던 폭탄 이름은 비격진천뢰와 대완구라고 했다.
아이까지 동원하다니 무서운 놈들이다.

내일이면 성이 함락될 것이다.
조선인듸 코를 가져가면 돈을 받는다.
그럼 그 코들은 교토 귀 무덤에 있겠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웠지만 결국 일본에 코를 묻게 되겠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단 말인가? 내 알바가 아니다. 이것은 괜한 오지랖이다.
한심하다.
난 부와 명예를 거머쥘것이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은 웃으며 잠에 들 수 있겠다.

1579년 8월 14일
우리는 장대를 높이 세워 위에 올라가서 조총을 쐈다.
명나라군과 조선군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우리의 전략에 많은 명나라군과 조선군들을 죽였다.
나의 전략에 감탄하며 며칠뒤면 호남은 우리 것이 될 것 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잠자리에 누웠다.
계속 승리를 하고 있지만 군사력이 너무 차이나서 한 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다.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조선인들은 어디선가 계속 나타나 목숨을 바쳐 싸웠다.
자꾸만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든다.

1579년 8월 15일
우리는 볏단을 베어서 해자를 메꾸었다.
볏단 사이사이로 물이 스며들며 해자가 메꾸어지자 뭔가 예감이 좋았다.
이번 작전 역시 성공할거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볏단을 성문 앞에 높이 쌓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성문을 타고 넘었다.
동문과 서문이 뚫렸다.
오직 그 미친 장수가 지키는 북문만이 막혔을 뿐이다.
우리는 동트기 전 어두운 틈을 타 빠르게 성안으로 잠입했다.
그 순간, 우리 군중 한명이 낙엽을 밟았다.
매복에 실패하자 군사력으로 싸웠다.
성 안에는 손에 꼽을 정도의 군인이 있었다. 그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싸웠다.
성이 뚫렸는데도 조선인들은 싸웠다.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싸웠다.

우리는 수많은 총구를 그들에게 겨누고 무수히 많은 총알을 발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다가왔다.
그러다가 한 군인이 총알을 피해서 우리군인 한명을 죽였다.
물론 그는 바로 죽었지만 나는 그들을 보다가 깨달았다.

'나라의적을 우연히 하나라도 무찌를 수있다고 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인가?'
나는 모르겠다.
왜 내가 조선인들을 보면서 위대한 감정이 드는 걸까?
분명 적인데 나는 그들의 용기에 나도 모르게 존경하고 있었던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하나만큼은 확실하다.
그들은 용감하며 위대하다.. 그때였다.
총에 맞아 다리를 절뚝이던 조선인 장수가 갑자기 시마즈 요시히로 장군을 안고 화약 창고로 밀었다.
그후로 폭발음이 들렸다.
자폭을 한 것이다.
죽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적군 하나라도 죽이겠다는 저 의지! 무섭다.
결국 모든 문이 뚫리고 도망가던 명나라 장수인 양원과 병사49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싹 다 죽었다.
이 얼마나 처절한 광경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결과가 죽어서 코가 베이는 것이라니.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무슨 죄더냐. 자신의 집을 지킨 것이 무슨 잘못이더냐.
자신의 나라가 불러서 온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냔 말이냐!
일게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냔 말이냐!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냐!
전쟁의 승리에 들떠 연회를 즐기는 우리군을 뒤로하고 난 방으로 들어왔다.

의자에 앉아 소란한 바깥소리에 귀를 막았다.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괴로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 죽은 조선인의 무
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지만 들킨다면 목숨을 내놔야 한다.
나는 자기 목숨 하나 바쳐서 싸운 조선인들을 보았다.
모두가 잠 든 사이 나는 몰래 성을 나왔다.
나는 코가 없는 시신 몇을 옮기고 묻으며 생각 했다.
이들의 의지는 무엇이든 할 수있을 것이다.
이들의 영혼이 이땅에 잠들어 있는 한 일본이 혹은 다른 나라가 침략하더라도 조선은 영원히 조선일 것이고 영원히 이곳을 지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정신과 숭고한 삶을 추모했다.

가(假)승(勝)진(眞)패(敗)

나는 이 전투에서 이겼지만 패했다.
진정한 승리는 조선인들의 것이다.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 영웅이 되겠지만
이건 분명 가짜 승리이고
난 가짜 영웅이 되겠지.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이야 말로
이 전쟁의 끝이며
이 전투의 진정한 승리자다.